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요인 분석

- 탈공업화 논의를 중심으로 -

오 준 병

(연구위원 · 산업경쟁력실)

jun@kiet.re.kr

〈요 약〉

최근 한국경제는 해외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제조업의 명목비중 감소라고 하는 산업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서의 탈공업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고용측면에서 바라본 제조업의 비중은 1989년의 27.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실질 GDP로 바라본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비중의 관점에서는 한국경제의 탈공업화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생산비중의 측면에서는 아직 탈공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여도 분석 결과 제조업의 고용비중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 등 내적인 요인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제조업의 무역수지 변화 등 대외적인 요인은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은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의 탈공업화를 주도하거나 제조업공동화를 일으킬 만한 수준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구조고도화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자료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비중 감소 속도가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였으며, 특히 전자·기계 등 IT를 중심으로 한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미약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생산성 증가로 인한 제조업의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산업으로 원활하게 흡수되지 못할 경우 구조적 실업문제가 한국경제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보다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수요 증대와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잉여 인력을 흡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먼저 발생하기 시작한 경제 현상으로서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 및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투자 및 생산의 감소, 고용감소, 그리고 제조업 부문의 무역수지 악화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영국의 경우 광공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던 1970년대에, 미국의 경우는 일본과 EU에 의한 국제경제적 경쟁이 심화되던 1980년대 초기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한국경제는 해외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제조업의 명목비중 감소라고 하는 산업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임금과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 경영환경의 악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요소비용의 경쟁력 약화를 생산시설 해외이전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 의미의 탈공업화를 의미하는 제조업공동화(hollowing out of manufacturing industry)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존하고 있다. 즉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가 경제의 성숙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탈공업화 현상이라는 시

각과, 고임금 등 국제경쟁력의 하락으로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결국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제조업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산업구조 변화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뿐만 아니라 실업 및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가 경제성숙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탈공업화 현상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의 비중 저하가 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불필요한 구조조정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제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구조 변화 비교

(1)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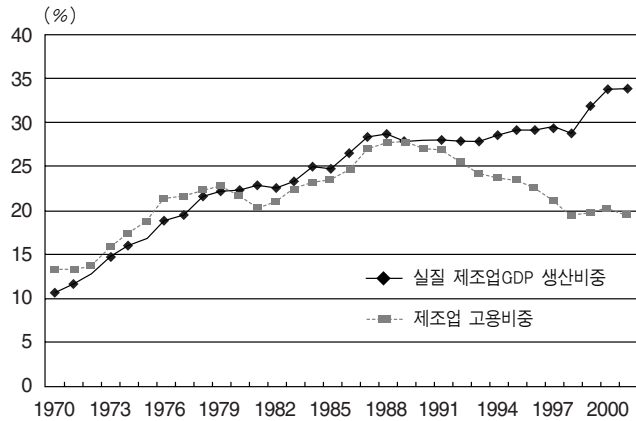
한국경제에 있어 제조업의 GDP 대비 생산 및 고용비중의 변화는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그 변화형태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

바라본 제조업의 비중은 1989년의 27.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 현재에는 19.2%까지 감소하는 등 고용 비중의 관점에서 바라본 탈공업화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 GDP로 바라본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 현재에는 33.4%에 달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질생산비중의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경제의 탈공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조업의 산업별 생산 및 고용비중의 변화추이는 이러한 제조업 변화의 원인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대표하는 섬유 및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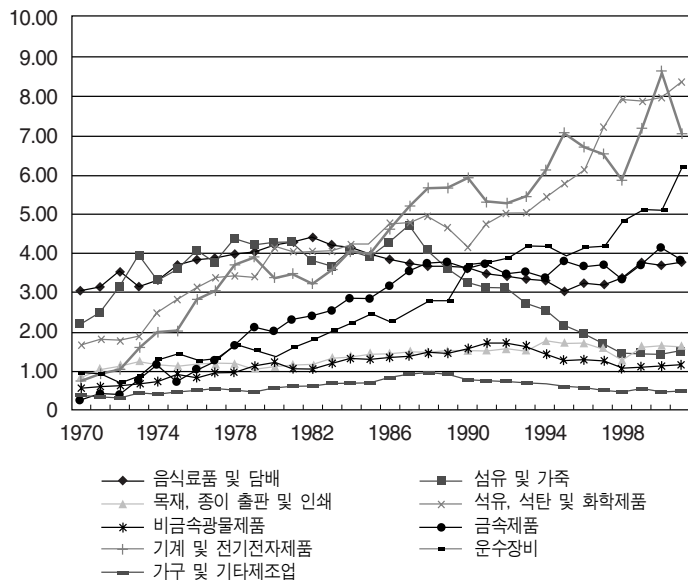
죽산업의 실질생산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계·전자, 석유화학, 운수장비산업의 실질생산비중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 자본집약

<그림 1> GDP 대비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의 추이



자료 : 1) OECD, STAN Database.
2)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 2> 제조업의 산업별 실질생산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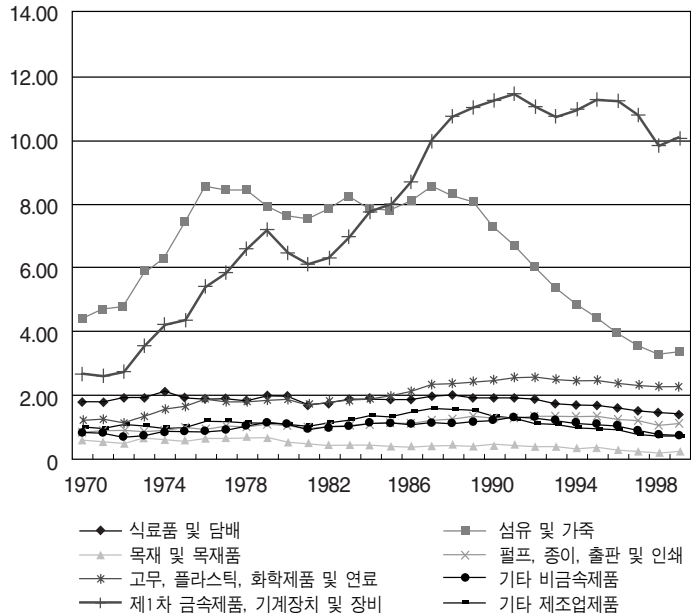


적인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제조업의 생산비중 증가에 현저한 기여를 하는 IT 중심의 산업이 1991년을 정점으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은 고용비중의 측면에서 기계 및 전자 산업이 90년대 초반

까지 고용비중 증가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하였으나 고용비중이 199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제조업이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제조업의 실질생산비중 저하를 지연시키고 있으나, 이들 산업의 노동절약적 특성과 부품·소재의 해외의존 등으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약함을

<그림 3> 제조업의 산업별 고용비중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KOSIS Database.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점이 섬유·가죽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제조업 고용비중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한편,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동

1) 우리나라의 경우 IT산업의 부품 및 소재를 국내개발보다는 주로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핵심부품·소재의 수입비중이 높은 첨단산업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2003년 현재 반도체의 경우 부품·장비의 수입비중이 84%, DVD 70%, PDP 65%, CDMA 단말기 61% 등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소득수준 시기의 미국·영국보다는 높고, 일본·독일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난 소득수준별 선진국의 제조업비중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9,189달러이었던 1980년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27.1%이었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1인당 GDP가 8,962달러와 8,616달러이던 1977년과 1982년에 각각 22.8%와 24.5%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역시 1978년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은 9,527달러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보다 높

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동일한 소득수준에 처해있을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의 경우 1인당 GDP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9,527달러인 1978년에 고용비중이 31.3%에 달해 우리나라의 19.7%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표 1> 소득수준별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 및 고용비중

단위 : %

	연 도	제조업 비중(%)		1인당 GDP (달러)
		생산비중	고용비중	
한 국	2001	30.0	19.7	8,900
일 본	1980	27.1	23.1	9,189
	1987	25.9	22.9	20,179
	2000	20.8	18.7	37,579
미 국	1977	22.8	19.4	8,962
	1988	20.7	16.0	20,853
	2001	14.1	12.1	35,321
영 국	1982	24.5	24.6	8,616
	1996	20.4	17.4	20,497
	2000	17.0	15.5	24,567
독 일	1978	29.8	31.3	9,527
	1990	28.1	28.4	24,458
	2001	23.2	20.9	22,815

자료 : OECD, STAN Database.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Paris, OECD, 2002.

주 : 1) 생산비중은 경상가격 기준임.

2) 독일의 경우 1978년과 1990년은 서독 기준임.

급속히 전자·기계 등 IT 중심의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변화되어 고용창출 속도가 느려진 반면, 섬유·가죽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쇠퇴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요 선진국의 사례는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제조업의 비중저하는 불가피한 공통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표 1>은 비교대상국가 모두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 및 생산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제조업 생산비중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3만 7,579달러에 달하는 2000년 현재의 일본은 제조업의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1인당 GDP가 3만 5,321달러인 미국의 경우 14.1%에 불과해 국가별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제조업비중 감소의 속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3. 기여도 분석 결과

(1) 제조업 고용비중의 결정요인 분석

1970년부터 2001년 간의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통계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비중 하락이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 등 대내적 요인들과 제조업의 무역수지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기여도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비중 하락이 주로 내적인 요인인 소득수준 향상과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현상의 일환임을 나타냈다.

<표 2>는 하병기·오준병(2003)의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설명변수들의 고용비중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는 표본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비중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수요패턴의 변화와 노동의 부문간 생산성 격차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가 고용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113.8%에서 42.2%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노동의 부문

2) Clark(1957)은 탈공업화를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데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즉, 선진국의 경우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제조업 제품에 대한 소득 탄력성보다 크게 되어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간 생산성 격차가 고용비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46.7%에서 118.4%로 급속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90년대 이후 전자·기계 등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절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변화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³⁾

한편, 대외적 요인인 제조업의 무역수지와 대개도국 수입 역시 제조업의 고용비중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내적인 요인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기존의 이론적인 예측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개발도상국 수입의 확대는 오히려 제조업 고용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대개도국의 수입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원료 및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원재료 및 부품이

<표 2> 각 설명변수들의 제조업 고용비중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고용비중 변화	내적요인			외적요인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생산성 격차	제조업 상대가격	설비투자	제조업 무역수지	대개도국 수입	기타
1970~1980	0.492	0.560	-0.230	-	0.081	0.027	0.027	0.027
		113.8%	-46.7%	-	15.5%	5.4%	5.5%	5.5%
1981~1990	0.288	0.245	-0.038	-	0.048	0.020	0.023	-0.010
		85.1%	-13.2%	-	16.6%	7.1%	7.9%	-3.6%
1991~2001	-0.132	-0.369	-0.369	-	-0.023	0.022	0.150	0.040
		42.2%	118.4%	-	7.4%	-7.0%	-48.2%	-12.9%

주 : 1) 각 설명변수의 기여도는 해당변수의 표본기간 동안의 변동분에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된 상관계수를 곱하여 도출함.

2) () 안의 값은 기여율(%)을 의미함.

3) 위 기여도 분석은 하병기·오준병(2003)의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3) Rowthorn and Ramaswamy(1997, 1998)는 탈산업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부문간 수요 구성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생산성 격차를 강조한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면, 이는 제조업의 노동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제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제조업의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상대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제조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제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상반된 효과 중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제조업의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를 상회함으로써 탈공업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증가는 수출의 증가와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대개도국 수입의 증가는 수출증대에 기인할 수 있고 이는 제조업의 고용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가 주로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의 부상과 공장의 해외이전 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과정의 일환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제조업 생산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

제조업의 실질생산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역시 고용비중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기간별 기여도 분석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제조업의 생산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는 소득수준의 증가가 제조업의 생산비중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의 향상이 제조업의

생산비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득수준의 향상은 이미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생산비중을 감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조업의 상대가격 하락에 의한 제조품 수요증가는 제조업의 생산비중 감소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1년부터 2001년 사이 제조업의 상대가격 하락에 의한 수요의 증가는 제조업 생산비중 변화의 70.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급격한 제조업의 생산비중 감소를 지연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대외적 요인인 제조업 무역수지와 대개도국의 수입 증가는 생산비중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제조업 무역수지는 실질생산비중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1년부터 2001년 사이 제조업 생산비중 증가의 7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과 수출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각 설명변수들의 제조업 생산비중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생산비중 변화	내적요인			외적요인			
		소득수준에 따른 수요패턴의 변화	생산성 격차	제조업 상대가격	설비투자	제조업 무역수지	대개도국 수입	기타
1970~1980	0.734	0.176	-	0.448	0.013	0.033	0.026	0.039
		23.9%	-	61.1%	1.7%	4.5%	3.5%	5.3%
1981~1990	0.201	0.004	-	0.188	0.007	0.025	0.022	-0.046
		2.2%	-	93.5%	3.7%	12.7%	10.8%	-22.8%
1991~2001	0.188	-0.138	-	0.133	-0.004	0.027	0.143	0.026
		-73.5%	-	70.9%	-1.9	14.5%	76.2%	13.6%

주: 1) 각 설명변수의 기여도는 해당변수의 표본기간 동안의 변동분에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된 상관계수를 곱하여 도출함.

2) () 안의 값은 기여율(%)을 의미함.

3) 위 기여도 분석은 하병기·오준병(2003)의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기여도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수요패턴의 변화와 노동의 생산성 격차, 제조업의 상대적 가격과 같은 대내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에 기인한 탈공업화 현상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Wood(1994, 1995)의 가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제조업의 고용 및 생산비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4. 탈공업화의 평가

본고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경

제의 산업구조 변화에 관하여 그 현황과 요인을 탈공업화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고용측면에서는 이미 고용비중의 감소가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탈공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생산기준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생산비중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아직 탈공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패턴의 변화가 생산비중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요패턴의 변화가 제조업의 생산비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여도 분석 결과는 소득수준의 향

상에 따른 수요구조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격차, 제조업의 상대가격 차이 등 소득과 생산성에 기인한 대내적인 요인이 우리나라의 고용 및 생산비중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탈공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무역수지 등 대외적 요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탈공업화의 진행에 미약한 영향을 주거나, 오히려 고용 및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과 수출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경제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가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술혁신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업구조조정 현상의 일환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제조업공동화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의 제조업이 전자·기계 등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이들 산업이 생산성 향상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Rowthorn(2003)은 탈공업화를 경제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주는 실익을 면밀히 인식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피할 수 있는 변화는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공업화는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급속히 진행될 경우 구조적 실업의 증가와 사회갈등의 증가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인한 잉여 인력이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원활하게 흡수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보다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수요증대와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구조조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흡수하고 제조업과의 선순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